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 관계하기>의 줄거리 :

정말 갑자기 토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후로 성경에서는 토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제사는 성막이나 성전의 번제단에서 다 드려졌습니다. 이 토단에 대한 말씀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식을 토단 쌓기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토단 쌓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관계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 관계하기

(출애굽기 20:22~26)

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 관계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세는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멀리 떨어져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도 안 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신상은 은으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말 못하는 신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민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상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눈으로 형상을 확인함으로써 상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선민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자로 관계할지에 대해 은근히 걱정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대자로 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육체의 오감으로 관계할 수 없기에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념함이란 곧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관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토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체 왜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내산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토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

니다.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들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이후에 토단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토단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신상처럼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관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예로 드시며 하나님 이름 기억하기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토단을 쌓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와 관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음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의 의미를 알아야 토단을 쌓듯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신 유일한 있음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는 유일한 좋음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신학자들처럼 책상에서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떠올릴 수 있는 속성이란 살아계심, 말씀하심, 인격체이심, 유일한 있음이심, 유일한 좋음이심, 유일한 주권자이심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이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이론적 속성들을 떠올렸다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

야 합니다. 대부분 기독교 종교인들이 이 단계에 막혀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독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과 연관된 하나님의 속성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작 마음을 주는 대상은 세상에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대상에게 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에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 초일상적인 파격적 현상들이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우레와 번개와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나팔 소리와 불길이 치솟으며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면 누구나 의식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일상적이고 파격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묶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이란 세상 관심사에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다가 눈앞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치솟고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면 모든 의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의식과 신경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럴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기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드리기에서 막힙니다. 이것이 안 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뒷담화하는 식으로 믿습니다. 뒷담화는 현장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떠올렸다면 그 이름과 속성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토단 쌓는 것을 비유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토단 쌓기의 의미를 알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토단을 쌓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토단을 쌓는 장소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들으라’는 뜻의 쉐마로 불리는 지침이 기록되었습니다. 5~9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토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토단을 쌓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는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민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곳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토단을 쌓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내가 선민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 이름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 일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의식을 점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들에 정복당할 때 의식은 온통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이름을 다 잊어버렸구나! 내 이름을 기억해라!’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토단을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단 쌓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지대한 관심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음이란 하나님의 속성인 유일한 있음이심, 유일한 좋음이심,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에 대한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항상 ‘내 이름을 기억해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토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토단 쌓기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의 관심사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할 정도로 강력한 관심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외치십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계기로 삼아 토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토단 쌓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를 토단 쌓기를 통해 가르쳐주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에 의식을 빼앗기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반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토단 쌓기를 비유로 십자가 생활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제와 화

목제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성막에 번제단이 있었고,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토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것은 토단 쌓기의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관심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깨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24절에서 토단을 쌓을 곳에 대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마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일들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다. 이러한 마음은 번제로 드려지는 소와 양과 함께 죽어야만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 생활화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번제는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에 의식을 빼앗기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번제물과 함께 불에 타서 재가 되어야 하고,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 복구하는 제사로 내 마음을 더는 세상 관심사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처럼 내 마음을 빼앗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한 나는 번제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번제물을 죽이듯이 나의 관심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러운 내 마음은 번제로 태워 죽여 재로 만들고, 세상 관심사가 다 끊어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속성을 기억함과 더불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됩니다. 다른 종교의 신상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토단을 쌓아야 하는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토단을 쌓는 이유는 세상 관심사가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사를 처리하는 것이 토단을 쌓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비유적으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토단을 쌓을 때 정으로 다듬은 돌을 쓰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일을 할 때 절대로 나의 의도나 인위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로부터 세상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일을 처리해 나갈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일은 하나님을 관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도라는 인위적인 요소가 세상일을 관계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함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세상일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도라는 인위적인 요소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되는 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을 잘되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하기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상의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든 이유는 ‘내 이름을 기억하며 토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토단 쌓기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뜻하는 대로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감을 마음에서 키우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좋음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의 바람이란 세상의 관심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다 보면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생각과 뜻을 넣어주십니다. 그럴 때 따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뜻을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과 좋음을 열망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함을 유지하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 됩니다. 내 인위성이 포함되지 않게 세상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토단 쌓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하체가 드러남에 대한 경고는 앞으로 제단이나 제사장에 대한 말씀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의복을 염두에 두면 하체가 드러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란 통째로 뒤집어쓰면 발목까지 가리는 형태였기에 아래에서 올려본다고 해서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하체가 드러남을 언급하신 것은 토단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세상의 관심사를 처리함으로써 그 잘된 일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이 잘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체가 드러남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래에서 치켜보는 위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일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관계하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그 일에는 내 의도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가 의미하듯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있음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 좋음을 열망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의도성 없이 세상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높아지지 않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성취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취는 하늘에서 하나님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관계하기 위한 계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토단 쌓기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의 관심사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빼앗겼던 내 마음은 번제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의미대로 내 마음은 새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함을 유지해야 합니

다. 이 삶에 대해서는 마음이 화목제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되 절대로 의도성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겠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냄과 다름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토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마다 하나님을 관계하는 계기로 삼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계획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될 만한 모든 세상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토단 쌓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토단 쌓기는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 생활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관계하기 위한 토단 쌓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기의 계기로 삼고,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부자가 되는 역사가 날마다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므로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토단을 쌓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관심사를 맞이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토단 쌓기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